

2012. 9. 17 Vol. 38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거시경제 동향

201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KREI 리포터)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실태와 요구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본 자료는 9월 11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2012 상반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12.1.1.부터 6.30.까지 귀농·귀촌한 가구
- 기 간 : '12.8.8 ~ 8.24
- 조 사 자 : 시군(읍면) 귀농담당 공무원
- 조사방법 : 시군 귀농담당 공무원이 해당시군의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조사(읍면→시군→시도→농식품부)
- 조사내용
 - '12년 상반기 시도별 귀농가구 및 인구현황
 - 귀농인 연령별 현황, 귀농후 농업 주종사 분야, 귀농전 직업 등

□ 주요 내용

1. 귀농·귀촌 연왕(2012년 6월 현재)

- 귀농·귀촌 가구수는 '05년도 1,200호 내외였으나, '11년 1만 503호에서 '12년 상반기에 8,706가구로 조사됨.
 - ※ ('01)880가구 → ('05) 1,240 → ('10) 4,067 → ('11) 10,503 → ('12.6.) 8,706
- '12년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가 '1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작, 전원생활 등 다양한 삶 추구, 국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 작용
- 상위 4개도(충북, 전북, 전남, 경북)의 비중이 70.4% 수준으로 높음.
 - 수도권 인접성, 농지가격, 농지구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

으로 이주

※ 그 외 시도 : 강원 1,014, 경남 959, 충남 403, 제주 154(다만, 경기도 제외)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가구수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비율)		12.6	25.8	4.6	17.1	16.8	16.3	11.9	0.2	0.2	0.1	1.9
인구수	17,745	1,963	3,467	895	2,920	2,956	2,820	2,195	41	50	44	394
(비율)		11.1	19.5	5.0	16.5	16.7	15.9	12.4	0.2	0.3	0.2	2.2

2. 연령별 귀농·귀촌현황

- 연령별로는 50대가 32%, 40대가 24.4%를 차지하여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 귀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60세 미만의 귀농은 75% 수준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8,706	415	1,186	2,127	2,786	1,622	467	103
(비율)	4.8	13.6	24.4	32.0	18.6	5.4	1.2

3. 귀농·귀촌 가구 비율

- 귀농·귀촌별로 구분하면, 전체적으로 귀농가구가 53.7%(4,678), 귀촌가구가 46.3%(4,028)임.
- 귀농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이주가구의 80.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귀촌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76.5%가 귀촌인구로 나타남.

<도별 귀농·귀촌 가구수 비율(2012년 6월 현재)>

단위 : 가구수, %

구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합 계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귀농가구 (비율)	4,678 53.7	386 38.1	491 23.5	278 68.9	838 60.7	1,092 80.6	879 66.7	602 62.8	8 57.1	6 42.9	5 45.5	93 60.4
귀촌가구 (비율)	4,028 46.3	628 61.9	1,594 76.5	125 31.1	542 39.3	263 19.4	438 33.3	357 37.2	6 42.9	8 57.1	6 54.5	61 39.6

4. 귀농자 주작목 현황

- 귀농후 농업 주 종사분야는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영농이 쉬운 벼 등 경종분야가 3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과수(9.0%), 시설원예(6.3%), 축산(2.7%) 순으로 조사

<귀농자 주작목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

계	경종	원예(시설)	과수	축산	기타
8,706	3,093	551	785	237	4,040
(비율)	35.5	6.3	9.0	2.7	46.4

5. 귀농·귀촌 전 직업현황

- 귀농전 직업으로는 자영업(24.6%), 사무직(18.5%), 생산직(10.8%) 순으로 조사

<귀농·귀촌 전 직업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

계	자영업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건설	공무원	주부	학생	무직	기타
8,706	2,144	1,609	936	427	370	259	712	84	582	1,583
(비율)	24.6	18.5	10.8	4.9	4.2	3.0	8.2	1.0	6.7	18.2

주요 농정 이슈_2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 본 자료는 9월 14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작년보다 2,000원 인상하여,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4만 9,000원으로 결정
 -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익년도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임.
 - 지금까지 7월 또는 8월 산지쌀값의 80~95%수준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올해도 금년 8월 평균 산지쌀값(16만 2,060원)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 5만 5,977원의 약 90% 수준에서 결정

<공공비축미 등급별 우선지급금>

단위 : 원/조곡, 40kg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포대벼	50,610	49,000	46,820	41,670
산물벼	49,790	48,180	46,000	40,850

주: 산물벼 가격은 포대벼 가격에서 포장제비용(820원) 차감

- 한편, '10년에 당초 4만 5,000원으로 결정했다가 4만 7,000원으로 인상한 사례와 같이 필요하다면 올해도 우선지급금을 인상하여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 9월 17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하여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우선지급금은 매입현장에서 농가에 지급하고 내년 1월에 매입가격을 확정하여 최종 정산할 계획

거시경제 동향

201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9월 1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전년 동월대비 0.3% 상승)
- **농림수산물**: 채소류와 과일류가 크게 오르면서 전월대비 **5.5% 상승**(전년 동월대비 2.9% 하락)
- **공산품**: 1차금속제품 등은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6% 상승**(전년 동월대비 0.2% 하락)
- **서비스**: 운수 및 금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상승**(전년 동월대비 1.0%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5월	6월	7월	8월	'12.5월	6월	7월	8월
총 지 수	1000	-0.6	-1.4	-0.5	0.7	1.9	0.8	-0.1	0.3
농 립 수 산 품	43.6	-1.6	-5.9	0.2	5.5	5.3	0.2	-3.4	-2.9
곡	11.0	0.1	0.0	0.0	-0.2	5.5	5.7	5.8	5.7
채	7.4	-11.4	-12.3	9.5	13.4	37.3	26.4	2.5	-3.4
과	5.3	4.2	-9.9	-4.6	11.2	24.0	9.6	9.3	16.9
축	12.0	0.5	0.8	-2.9	0.9	-15.8	-15.0	-12.6	-11.8
수	5.3	-0.8	-2.6	0.5	0.9	-5.4	-7.9	-12.5	-12.7
공 산 품	644.8	-0.7	-1.6	-0.8	0.6	1.6	0.3	-0.7	-0.2
음	59.7	-3.4	-4.9	-2.5	3.2	5.1	2.4	-0.8	2.7
석	55.2	-0.8	-5.4	-1.7	1.8	0.2	-3.2	-2.8	-1.7
화	65.6	-1.1	-2.7	-1.7	-0.8	-1.6	-4.8	-6.7	-7.5
1 차	93.7	0.5	0.5	-0.9	-0.5	-2.4	-1.5	-0.2	-0.5
전	44.5	-0.7	0.1	0.1	2.7	7.7	7.8	7.5	7.8
전	264.4	-0.1	-0.2	0.2	0.1	0.8	0.8	0.7	1.0
전	61.6	0.4	-0.5	0.5	0.1	1.9	1.9	2.5	2.3
운	27.4	-1.7	-0.7	0.0	0.9	-5.6	-5.5	-7.1	-2.8
리	43.3	-0.1	-0.2	-0.2	-0.1	2.7	2.6	2.1	2.1
문	31.1	0.2	0.1	0.5	0.1	3.0	3.3	2.9	2.7
기	31.1	0.3	0.2	0.1	0.5	3.2	3.0	3.3	2.9

□ 특수분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2.6% 상승(전년 동월대비 0.2% 상승)
-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10.8% 상승(전년 동월대비 3.8% 하락)
- 에너지는 전월대비 2.5% 상승(전년 동월대비 4.4% 상승)
- 신선식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전년 동월대비 0.2% 하락)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5월	6월	7월	8월	'12.5월	6월	7월	8월
식 료 품	81.3	-1.0	-2.3	0.5	2.6	4.5	2.3	0.1	0.2
식 료 품 이 외	918.7	-0.5	-1.4	-0.5	0.6	1.6	0.7	-0.1	0.4
신 선 식 품	16.4	-4.6	-10.1	3.2	10.8	18.4	7.9	-3.4	-3.8
신 선 식 품 이 외	983.6	-0.5	-1.3	-0.5	0.6	1.6	0.7	0.0	0.4
에 너 지	93.8	-1.7	-2.2	-2.3	2.5	6.9	5.9	2.8	4.4
에 너 지 이 외	906.2	-0.4	-1.3	-0.2	0.5	1.2	0.1	-0.4	-0.2
I T	175.1	0.1	-0.1	-0.5	-0.2	-1.5	-1.2	-1.3	-1.3
I T 이 외	824.9	-0.7	-1.6	-0.5	0.9	2.3	1.1	0.1	0.6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3	-1.1	-0.3	0.3	0.9	0.0	-0.4	-0.2

□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실태와 요구

○ 전남·제주지역 농작물 태풍피해 커…시설물 복구지원 절실

- 태풍피해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특히 전남이 심한 타격을 입었음. 백수현상은 없고 벼 쓰러짐도 5% 정도이지만 참깨, 고추, 율무, 콩 등 밭작물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데다 비닐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할 일손도 부족함. 태풍피해에 대한 시설물 복구지원이 시급한 실정임.<나종주, 전남 화순>
- 제주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음. 밭농사는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지만 하우스 농가는 비닐 등의 보상이 안 된다고 함. 모두에게 일어난 재난이라 비닐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또한 비싸 어려움이 많음. 이에 밭농사만 보상해줄 것이 아니라 하우스 농가에도 시설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바람. <임영애, 제주 제주>
- 우리 농업인들은 태풍피해 때문에 부채가 더욱 쌓이고 있으며, 특히 과수 품목은 일 년에 한 작기로 끝나기 때문에 태풍피해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것임. 시설하우스 비닐은 모두 찢어져 새 비닐로 교체해야 하고 파종을 다시 해야 하는데 복구도 늦고 비닐 공급도 어려운 실정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실화 필요

- 태풍 불라벤의 피해로 5,000평 되는 수수밭의 수수가 대부분 쓰러졌음. 단양군에서 태풍피해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피해 보상금은 거의 없는 실정임.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절실함.<정화려, 충북 단양>
- 태풍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와 내용이 보상기준에 거의 해당되지 않아 걱정이 많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절실함.<김경수, 전남 완도>

○ 부산·경남지역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보상기준 낮춰야” 여론

- 부산지역은 전라도와 서해에 비해 태풍피해가 적었음. 어떤 곳은 피해가 50% 이상 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미미한 지역도 있음.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최근 보상률은 피해액의 20%에 불과해 더 많은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 기준을 낮추어야 함.<최시훈, 부산 기장>
- 김해지역은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피해보상 문제로 불만이 있음. 보상되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정부에서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피해범위와 피해액에 따라 어느 정도 보조해주어 농업인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람.<김병철, 경남 김해>

○ 청양지역 밤 60~70% 낙과피해, 원상복구에 4~5년 예상

- 청양지역은 산간지대라 밤 재배농가들이 많고 소득이 단일작목으로 제일 높는데 이번 태풍으로 60~70%가 낙과되어 농가에서는 망연자실한 상태임. 특히나 밤의 경우, 낙과 피해도 심각하지만 밤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가지가 부러져 원상복구 되려면 최소 4~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됨.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장석우, 충남 청양>

□ 기타 농업농촌 연장 여론

○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개선 필요

- 농촌인구는 날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으며, 농작업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다수 농업인들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일반 보험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박생순, 경북 청송>
-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안전공제 보험에 재가입하고 싶어도 한번 수혜를 받았을 경우 가입이 제한되고 치료비 보상 보험에 해당되지 않음.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고 혜택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김경수, 전남 완도>

○ 노후대비를 위한 비과세 예탁금 적용대상 확대 필요

- 어려운 농촌생활에서 농업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비과세 예탁금은 꼭 필요한 금융제도임.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연간 수입이 낮은 소작농에게라도 혜택을 확대해 주길 바람.<박생순, 경북 청송>

○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 요즘 농촌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주민이 살고 있는 집 근처까지 내려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마구 파헤쳐 놓고 있으며 피해가 매년 커져가고 있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망됨.<김종근, 전남 순천>
- 부산 기장지역은 아직까지는 마을에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준다는 소식을 접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수원 주변에 전기 목책을 설치하였는데 비용 부담이 큰 편임.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이 요망됨.<최시훈, 부산 기장>

○ 농업관련 영농정보 입수와 활용 실태

- 농업관련 영농정책 관련 정보는 매달 정기적으로 디지털 농업이나 농민신문, 농업관련 사이트 또는 작목반 사람들을 통해서 얻고 있음.<최시훈, 부산 기장>
- 농업관련 영농정보는 농민신문, 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 주로 얻어 참고는 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박생순, 경북 청송>
- 영농정보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달 보내주는 책에서 세계농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품목별 동향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남보다 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또한 국내 시장(가격)정보는 농업관련 잡지나 책을 통해 보고 있음. 재배기술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충해 등 긴급을 요하는 정보는 농협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음.<김상우, 제주 서귀포>

※ 본 자료는 9월 10일~9월 1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상기후...재에 급증, '날씨보험' 활성화해야

- 기상청과 보험연구원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개인뿐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보상해 주는 날씨보험을 활성화를 주장.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날씨보험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 7,942억 원의 6%인 478억 원에 불과**,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날씨보험으로 보상된 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54%인 339억 달러(약 40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날씨보험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해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부가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 대부분임. 기상연구소는 **우리나라는 날씨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2% 수준**으로 미국의 42%, 일본의 51%보다 날씨민감도가 더 높으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날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험연구원은 미국·캐나다·멕시코·인도·중국 등지에서는 농작물보험을 중심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날씨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영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날씨리스크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자료 : 농민신문(2012.9.12).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아라더니...보상은 '기대이아'

- 정부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엄격한 보상기준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 화성에서 2만 5,000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피해조사를 실시한 농협에서는 **피해율이 20%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WTO 협정에서 자연재해 보조금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평년 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농민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자기부담비율을 반드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농가들은 농협이 수확기 이후 피해율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피해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9.10).

□ ‘한우파동’ 재연 우려...과도한 암소도축 막아야

- 11일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12’에서 조영득 GSnJ 인스티튜트 책임 연구원은 “암소의 **채산성 악화와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과열된** 암소 도축이 일어난다면 1990년대 말과 같이 **가격하락과 도축 증가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한우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암소 도축마릿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27~55% 가량 높아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가 본격적인 감소기에 접어들었고 2015년 무렵에는 총 사육마릿수가 250만 마리 이하로 감소하고 2016년 무렵에는 가임암소마릿수가 100만 마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이 2011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민소득이 연간 2.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한우고기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가임암소마릿수는 2015년 145만 마리, 2017년 153만 마리로 2016년이 되면 가임암소마릿수가 적정 사육마릿수보다 47만 마리가량 밀돌 것으로 추정. 이에 정부는 암소 추격도축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가동해 번식농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흡수, 한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우농가 역시 과도한 암소도축을 자제한다고 강조.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9.12).

□ 정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절사 돌입

- 정부는 지난달 21일 개최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추가 수요는 1만 8,000명**이지만 **올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4,500명으로 1/4 수준에 불과**. 농업계는 4,500명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9,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농·축산업분야 업종별 필요 인력은 총 2만 3,037명으로 현재 1만 4,195명의 외국인을 제외하면 8,842명이 부족해 9,000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는 9,000명까지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1,000명 내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쿼터를 늘려주는 것은 좋지만 농촌 현장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9.13).

□ “쌀 등급제 ‘미검사 표시제’ 로 정착될라”

- 햅쌀 출하를 앞두고 산지에서 **쌀 등급제**(완전미율에 따라 1~5등급·미검사로 표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강원도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올해 햅쌀을 미검사로 출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등급을 표시하기엔 **제반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만일의 실수로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 또한 대형유통업체에서 등급표시를 요구할 경우 하향 표시된 등급이나 미검사 등을 이유로 가격을 후려지거나 납품을 중단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 철원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상 조생종인 <오대쌀>이 적합한데다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높아져 있지만, 품종 특성상 낱알에 흰부분이 많기 때문에 3~4 등급으로 밖에 표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오대쌀> 명성을 버리고 대체품종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RPC가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고, 장비가 없는 RPC나 임도정공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분석을) 의뢰하면 된다”며 “또 정상적인 작황상태에서는 분석 결과의 오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등급제를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일축.

자료 : 농민신문(2012.9.10).

□ 농촌주민 생활 만족도 낮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농촌생활지표로 본 농촌사회 변화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조희금 대구대 교수는 **농촌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의 연도별 전체 평균이 보통수준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63~2.97인 것으로 발표**. 또한 조교수는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은 2011년의 경우 6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자녀교육과 소득문제가 가장 큰 원인... 이에 따라 젊은 층인 30, 40대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및 학습지도 지원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2.9.10).

※ 본 자료는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과 같이 높은 수준 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총괄**

- 2012년 FAO 8월의 식량가격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213 point 기록
 -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 2월(238 point) 보다 10.5% 낮고, 전년 동월(231 point) 대비 7.8% 낮은 수치
 - ※ 식량가격지수 : ('11.2월)238 → (12월)211 → ('12.1월)213 → (4월)213 → (7월)213
- 곡물, 유지류의 국제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설탕 가격이 급락**하면서 8월 식량가격지수의 추가 상승 억제

□ **주요 품목별**

- (곡물) 전월과 동일한 260 point 기록
 - 미국의 옥수수 및 러시아의 밀 작황에 대한 악화 전망이 높은 곡물가격을 형성했으나, 8월말이 되면서 미국 가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에 큰 비가 내리고 러시아 정부가 밀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가격 상승 추세가 안정
- (유지류) 전월과 동일한 226 point 기록
 - 7월과 마찬가지로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의 가격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팜유 가격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유지류 가격 상승을 상쇄
- (육류) 전월(167 point) 보다 22% 상승한 170 point 기록
 -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가격 상승은 곡물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돼지, 가금육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은 각각 4%와 6% 상승

○ (유제품) 전월(173 point) 보다 1.6% 상승한 176 point 기록

- 치즈 가격은 안정적이었던 반면, 탈지분유, 카제인, 버터 및 전지분유의 가격이 상승

○ (설탕) 전월(324 point) 대비 8.5% 하락한 297 point를 기록

- 이는 전년 동월(394 point) 대비 25% 낮은 수치임.
- 설탕 가격지수의 대폭적인 하락은 최대 설탕수출국인 브라질의 유리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생산 전망 개선, 인도의 몬순으로 인한 사탕수수 작황 개선 전망에 따른 것

□ 2012/13년도 세계 곡물공급량 전망

○ 2012/13년도 세계 곡물생산량: 2,295백만 톤 전망(전월 대비 4.2%(101백만 톤) 감소, 전년 대비 2.2%(52백만 톤) 감소)

- 201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미국 전역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옥수수 생산 전망 악화를 반영

※ 주요 곡물 생산량 전망치:

- 쌀 0.2% 증가(1백만 톤)
- 잡곡 1.5% 감소(17.4백만 톤)
- 밀 5.1% 감소(35.8백만 톤)

○ 2012/13년도 세계 곡물소비량: 2,317백만 톤 전망(전월 대비 2.2%(53백만 톤) 감소, 전년 대비 0.3%(7백만톤) 감소)

○ 2013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 503백만 톤 전망(기초재고량 대비 3.6% 감소)

※ 주요 곡물 기말재고율 전망치:

- 쌀 34.4%
- 잡곡 13.3%
- 밀 25.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